

新書

黨 讀

'79. 12

3

特輯 · 70年代를 回顧한다

道 政	難關과 試鍊극복 보람의 10年
教 育	高級頭腦개발로 發展促進
市 政	生産都市이룩한 큰 轉換點
文 化	精神文化伸張에 크게 寄與
藝 術	人間平和의 和解를 示顯
新 聞	社會淨化와 民衆啓導 앞장
放 送	國民의 알 權利 충족이 責務
建 設	農村住宅 改良으로 近代化
体 育	官民 体育會 일체감을 助成

卷頭言 · 아, 잘 가거라 70年代여!

전집후기

◇: 시간이 흐를수록 本誌의 發展을 위해 많은 筆陣 여러분이 참여해서 빛내 주심은 참으로 고무적 이 아닐 수 없다.

11, 12月 合併號에 1970年代의 총 결산 特輯으로 1970年代를回顧해 왔다.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그간 全北地方의 10年の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스>

◇: 80년도 1月號엔 「80年代에 바란다」를 特輯으로 엮어볼까 한다.

「行政의 측면, 地方금융, 社會福祉, 文化, 教育, 体育, 都市計劃, 地方自治, 工業, 人口문제」 등 세

時代에 펼쳐질 문제점들을 제시해 볼직 하기 때문이다.

많은 투고 바란다.

◇: 80년도 부터는 완전히 체제를 갖춘 명실 상부한 全北人의 종합지가 탄생될 것임을 약속한다.

막강한 편집위원(위원장: 張明洙 全北大 교수)이 구성되어 참신한 편집으로 全北人의 精神史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감히 자부해 보는 바이다. <모>

◇: 흰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눈 두렁에서 방패연이라도 띄워보고픈 마음이다.

새로 신설한 全北人物列傳을 全州 MBC 宋榮相씨가 연재하기로 하였다.

우리 뇌리속에서 지워져 가는 先覺者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자랑스런 全北人의 긍지를 찾아야

◇: 70年代를 마무리하고 79年度를 마감하는 送年 特大號에 무려 53名の 筆陣이 참여해서 本誌를 빛내 주셨다.

대망의 80年代에도 玉稿를 보내 하면서 거듭 감사드린다. (후)

蘆

嶺

11.12月 合併號 <通卷3號>

1979年 12月 10日 印刷
1979年 12月 20日 發行

<非賣品>

發行: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院長 權景升

編輯: 「蘆嶺」 편집 위원회

委員長 張明洙

一九七〇年代를回顧한다

道 政

難關과 試鍊극복 모람의 10年 ... 全 炳 宇

教 育

高級 頭腦개발로 發展促進..... 柳 在 榮

市 政

生産都市 이룩한 큰 轉換点 ... 李 吉 衍

文 化

精神文化伸張에 크게 기여..... 李 相 斐

芸 術

人間과 平和의 화해를 示顯 ... 柳 濟 寔

新 聞

社會淨化와 民衆啓導 앞장..... 李 治 白

放 送

國民의 알 權利 충족이 責務... 林 亨 淳

建 設

農村住宅改良으로 近代化 柳 應 敎

体 育

官民 体育會 일체감을 조성... 柳 尙 秀

文 化 院

地域의 文化 芸術振興 도모 ... 金 基 洪



□□ 飲酒의 論理



柳 承 國
〈醫 博〉

우리나라에서는 內科患者의 半數以上이 胃腸病患者이고 그 가운데에서 또 半數以上이 「後件肯定의 誤謬」라고 하는 「論理의 犯則」에서 오고 있어 보인다.

醫師가 주재넘게서려 무슨 「論理學」이냐고 나무랄 분도 있겠지만, 平素에 患者를 對할 때마다 느껴지는 일이기애 일찌 보는 것이다.

定言的 三段論法의 初步에 「後件肯定의 誤謬」라는 게 있다. 實例를 들어 본다.

「韓國사람은 黃人種이다」라고 하는 大前提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韓國사람」은 前件이라고 말하고 「黃人種이다」를 後件이라고 말한다. 이때에 이 大前提가 不當하지 않은 限 「아무개는 韓國사람이다」하고 「前件肯定」을 하는 小前

提를 내고서 「故로 아무개는 黃人種이다」하고 「後件肯定」을 하는 結論을 맺는 것은 正當한 論理이다. 그러나 「아무개는 黃人種이다」하고 「後件肯定」을 하고서 「故로 아무개는 韓國人이다」하고 前件肯定을 하는 結論을 내리는 것은 誤謬이라는 말이다. 여기의 「아무개」는 中國人일 수도 있고 日本人일 수도 있고 그 밖에 黃人種은 또 많이 있으니 말이다.

꼭 같은 論理로 「豪傑은 술을 좋아하는다」라는 大前提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豪傑」은 前件이고 「술을 좋아한다」는 後件이다. 이 大前提가 正當하다고 볼 때 「나는 豪傑이다」하는 「前件肯定」을 하고서 「故로 나는 술을 좋아한다」하고 結論을 내리는 것은 論理에 合當하다. 그러나 거꾸로 「나는 술을 좋아한다」하는 「後件肯定」을 하고서 「故로 나는 豪傑이다」하는 結論을 내린다면은 그것은 「後件肯定의 誤謬」라고 하는 論理의 犯則을 한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愛酒家도 있고 飲酒家도 있고 알콜中毒者도 있을진대 惟獨自

己만은 豪傑인양 酒量을 豪言하는 사람
은 酒傑은 되겠지만 豪傑이라고 斷定은
못한다.

知覺없는 豪氣로 亂飲을 하여 胃腸病
高血壓 알콜中毒症 精神·神經障礙 等 돌
이킬 수 없는 病症을 얻어서 生命을 저
버리는 結果가 되지 않도록 自省들을 하
여 주었으면 좋겠다.

술이란 決死的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
고 「白玉잇뿌리 은근히 스며드는 가을
저녁의 술이란 오묘하게 마시는 것이니
라」(牧水)。

바보처럼, 그러나

金 玆 鐘

〈全北新聞社 常務〉



秋夕 명절이 끼었던 1, 3, 5, 7,
9의 황금 연휴가 지나가자 제법 바빠지
기 시작한다.

반강제 문들이 가는山野 그리고 풍요

가 일렁이는 들녘마다 가을의 깊이가 완
연하다.

문득 내 마음도 歸巢를 서두는 들새만
큼이나 부산해진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탓에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愚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지만 뜻대로 되지 걱정이다.

「뜻대로……」라는 말은 「所望과 意志
대로……」라는 말일텐데 每事가 그 궤도
위를 순탄하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날 나는 그런 저런 생각을 굴리면
서 비좁은 市街를 헤쳐 갔다.

뭔가 짜증스럽다. 달려드는 차량의 물
결, 술한 人波、조심스럽게 몸을 가누지
않으면 금시 어디선가 斷末魔의 비명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좁은 道路網이다.

요즘 시민들의 대화 가운데는 내년 초
州에서 개최될 제61회 全國體典에 對한
關心이 무척 크다.

시내 택시를 타고 보면 기사들의 泰山
같은 격정을 들을 수가 있다.

全州처럼 협소한 도로망을 가지고 과
연 全國에서 물려들 차량과 인과를 어떻게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